

일본에서의 반 년을 돌아보며

동덕여자대학교

이도겸

하네다 공항에서 처음으로 도쿄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설렘과 긴장을 느낀 것이 엇그제 같은데, 곧 교환학생으로서 지낼 수 있는 날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장래에 기회가 있다면 공부나 취업을 위해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학부 정보과학과 학생이자 교환학생으로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과학과의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학문적 관점에서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코딩 실습을 진행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상급 B 한자와 일본사정연습ⅢB는 N1 수준의 한자, 그리고 일본 취업을 다루는 수업으로 유학생을 위한 과목이었습니다. 상급 B 한자에서는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유학생을 배려하며 가르쳐주신 덕에 한자와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정연습ⅢB에서는 일본의 취업 시장에 대해 여러 각도로 알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이루어진 토론과 발표 덕분에 지식은 물론 일본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흥미 분야였던 도시지리학, 논리학을 수강하며 전공 분야 밖의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문 과목을 모어가 아닌 언어로 수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일본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 또한 즐거웠습니다. 기숙사 주변에 있는 마루노우치선 덕분에 이케부쿠로와 시부야, 긴자와 같은 변화가를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아사쿠사와 요코하마 같은 관광지 또한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의 언어로 소통해보는 경험 또한 뜻깊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의 공용 주방을 빌려 요리를 만들어먹고,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등 많은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원활한 교환학생 생활을 위해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의 전반을 지원해 주시고 유학생과 오차노미즈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주신해 주신 국제과 담당자분들, 하기와라 교수님, 사쿠라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교수님이자 지도교수님으로서 제가 학업과 친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신 코바야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주신 관리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정보과학과 학생이자 친구로서 절 도와준 오차노미즈의 튜터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한 모든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